

1. 지금으로부터 2 천 5 백여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에 소문이 돌았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문이었지요. 이것은 성전 근처에 살던 사람들에게는, 옆동네가 재개발된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곳 주민들이 곧장 스룹바벨과 족장들을 찾아왔지요.
2.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또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앗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자 제안이었습니다.
3. 이러한 반응은 다른 때와는 사뭇 다른 것이었습니다. 천 여년 전, 그곳에는 여리고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때 중대한 잡족과 함께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성문을 걸어 잠갔었지요.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4. 뜻밖의 제안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성전 재건에 동참하게 해 달라? 그들은 자기들에게도 성전을 재건할 명분이 있다고 했지요. 거기에 동참할 의무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 때나 천년 전이나, 변함이 없었지요.
5. 에스라 4 장 1 절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4 장 7 절이하 10 절까지, 그들의 이름을 고시하고 있지요. 그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보낸 고발장을 그대로 성경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 고발장을 작성한 자의 이름과 배달한 자, 그리고 그 고발에 연대한 자들의 이름까지.
6. 이 이름들은,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그 원수에 해당하는 이름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의, 그 사마리아 사람에 해당하지요.
7. 이들이 쓴 고발장에 따르면, 이 대적들은 자신들을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은 유브라데를 의미하고, 그 강 건너편이란 가나안 땅이지요. 한자어로 하자면 ‘강남’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소위 그곳에서 페르시아 제국이 생기기 전, 앗시리아 시절부터 거주해왔던, 기득권층이라는 소리입니다.
8.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 강남은 원래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있던 곳이었지요?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곳에 밀려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앗수르 왕 에살하돈이 자기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켰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의 정당성이 현 정권보다 훨씬 전부터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9. 이런 주장들은 오늘날까지 이어지지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보면, 팔레스타인은 그 땅이 조상 대대로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요. 비록 2 천 여년 동안의 공백기간이 있었지만, 다윗이 왕조를 세운 이래로 가나안은 이스라엘의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10.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누가 오래됐느냐?를 내세우게 된다면, 그 관계는 원수지간으로 치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개만도 못한, 원수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자는,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 사랑받아야 할 그 원수의 자리에 서게 되지요.
11. 그 대적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누구와 원수가 되고 싶을 때, 또, 누구를 대적으로 삼아서 그들의 땅을 빼앗고 싶을 때, 그래서 자기의 그 오래된 기득권을 견고하게 만들고 싶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여기에서 살았다. 내가 너보다 먼저 선점했다!” 힘센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합법적”이라고 부르더군요.
12.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만, 옛날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소대 내무반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짬밥 순서였습니다. 같은 계급이라도 먼저 들어온 순서에 따라 차등이 나지요. 그래서 날 수까지 따져가면서 위 아래를 정하고, 그런 식으로 권위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는 한, 동기가 되기는 참 힘든 것입니다.
13.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여기 오랫동안 거주하는 교포야, 너는 주재원? 이렇게 서로를 구별하고, 또 자기의 연수를 내세우는 순간, 그 관계가 형제로 발전하기는 그른 것입니다. 그건 반드시 원수지간으로 발전하지요. 아니면 주종관계입니다.
14. 이 대적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스룹바벨과 돌아온 유대인들과 원수가 되는 과정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라고 제안합니다. 이건 일종의 연대지요. Solidarität 입니다. 공동의 이익, 목적 또는 책임에 대한 지지이지요. 성전 재건이라는 커다란 사업을 위해 단결하자는 말입니다.
15. 둘째,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스 4:2)” 했습니다. “나도 너와 같은 성도”란 말이지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는다! 바로 연대와 결속을 위한 동질성(Homogenität)의 주장입니다. 또는 그들이 유대인과 동일한 자의식(Identität)을 가졌다는 주장이기도 하지요.
16. 물론 이런 말을 할 때에 용어선택을 잘 해야 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라고 했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그 이름을 사용하지요.
17.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한 말에서, 이미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은 “아버지”처럼, 관계에서 생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란 “너희 아버지”와 같지요.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말한 것입니다.
18. 셋째, “앗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것은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사실 그들은 앗시리아 제국에 살던 사람들이지요. 혈통적으로도 이방인이라는 소립니다. 그러나 어떤 정치적인 힘이나 대격변 등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온 자들이지요.

19. 이런 자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바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더 따져보기도 전에, 이 말은 거짓말이지요. 왜냐하면, 제사란, 특히 여호와를 향한 예배는, 누가 시작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루스란 곳에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서원했지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고, 또 자기가 그곳에서 십일조를 드리겠노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그곳 루스가 벰엘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야곱이 돌아왔을 때부터?
21. 어느 장소가 하나님의 전이 되고, 또 제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사람이 정하거나 인지했을 때부터가 아닙니다. 제사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또 원하시는 자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이루어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영단번의 제사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2.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곳에 왔을 때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도 모르고, 또 제사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자백인 것입니다. 예배란, 또는 제사란, 우리 교회가 우리가 처음으로 이 건물에 들어왔을 때가 아닌,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입니다.
23. 그러니까, 이런 세속적인 방식으로, 연대의식이나 혹은 어떤 신앙고백이나, 또는 어떤 역사적 시점 등을 이용하여 이 대적들은, 성전재건에 동참하려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자신들이 하나님의 원수이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을 방해할 세력이며, 결코 알곡이 되지 못할 가라지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24. 에스라가 기록한 이 성전재건에 대한 기록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임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요. 또 지금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고, 또 그물 속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걸려 올라오고 있지요.
25. 그러나 그 그물 속에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우리의 원수가 누구인지가 구별되어 눈에 띄이는 것입니다. 그 원수는, 우리와 동일한 목적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또 우리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보다 더 오래동안 종교생활을 해왔다는 자들인 것입니다.
26.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둬낸 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그들은 예살핫돈이 보낸 자들일 뿐입니다. 거기서 무슨 유익을 얻고자 하는 자들이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일 뿐이지요.
27.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원수라고 칭하십니다. 그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 지목하시되,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28. 마지막으로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이 대적들의 제안을 거절하는 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은 이 일이 “홀로 건축해야 하는 일”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인간 그 누구의 도움이나, 또는 어떤 세상 정치적 간섭이 필요한 것이 아니지요. 그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의 일인 것입니다.